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4일 광주·전남 각 관공서에 취임 축하 현수막이 게시됐다. 왼쪽부터 광주 전일빌딩245, 전남도청, 동구청사, 남구청 미디어월, 북구청사에 게시된 현수막 모습.

/김애리 기자·각 관공서 제공

## 광주·전남 지역사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붐물’

姜시장 “새 정부 함께 광주 발전”  
金지사 “동반자로 미래 번영 최선”  
교육감 “교육 대전환 지렛대 기대”  
구청장들도 SNS 통해 환영 입장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소식에 광주·전남 지역사회가 일제히 환호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며 이재명 대통령이 짚어질 ‘책임과 사명’을 광주도 함께 감당하겠다.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또 “광주 주요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 등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가 나아올 때”라며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새 정부와 두

박두벽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축하메시지를 내 “압도적 지지와 신뢰를 받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며 “전남도는 ‘진짜 대한민국’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돼 빛나는 미래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의 철학인 국민이 진짜 주인 되는 국민주권정부,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진짜 성장의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굳게 약속한 전남도 7대 지역공약에는 전남도민의 오랜 꿈과 염원이 고스란히 담겼다”며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조성,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이날 SNS를 통해 환영 입장을 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인 선거였다”며 “새 정부가 국민 통합과 함께 회복과 성장,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이 대통령 당선은 단순한 대선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웠다든 엄중한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앞당기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도 SNS를 통해 이 대통령 당선을 일제히 환영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을 축하한다”며 “내란 종식과 남북의 평화적 협력관계 구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 역사를 여는 기분 좋은 새 아침”이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주시민들과 대통령께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적었다.

김병래 남구청장은 “가슴 벅차게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롭게 시작될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 더 빛나도록 진심을 다해 뜨겁게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 선장이 된 오늘 낙후된 광주·전남에 획기적 발전의 기회가 찾아온 게 아닌가 먼저 생각하게 된다”며 “그 누구보다 민초들의 삶과 고충을 잘 아는 대통령으로서 늘 국민과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광산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 자치분권·주민자치 복지 생활화로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생,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국가적 실행 지역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

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의 당선은 헌법을 유린한 불의한 권력을 국민의 손으로 심판한 정의의 승리이자, 민주주의가 다시 일어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5·18의 진실이 왜곡되고 송고한 정신이 일부 세력에 의해 폄훼되지 않도록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란정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도 이날 오후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내란 세력에 맞서 온몸을 던져 투쟁했던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국민주권 정부’를 선언한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박차를 가하라”고 요구했다.

/편집국

### 청소년 모의투표서도 이재명 당선…2위 이준석

전국 만 18세 미만 1만7천여명 참여

광주YMCA가 주관한 청소년 모의투표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광주YMCA는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2007년 6월5일 이전 출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 모의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 선거인단 1만7천466명이 참여한 모의투표는 5월29일부터 6월

3일까지 광주YMCA를 포함해 전국 70개 오프라인 투표소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됐다.

모의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64%로 1위를 차지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9.56%,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8.07%,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3.79% 순이었다.

전국 청소년모의투표 청소년대표단은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통령 당선증과 함께 청소년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들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은정 기자



### “李대통령 당선 축하” 서구 백반집 150여명에 무료 점심

광주 서구 쌍촌동 ‘양여사 가정식백반’ 식당이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무료 점심 제공 이벤트’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양정자(68·여·사진) 사장은 이날 하루 기존 단골을 포함해 150여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점심 메뉴는 제육볶음, 계란말이, 된장찌개, 깻잎장아찌, 호박전, 두부조림 등 푸짐하게 준비했다. 평소 점심 시간에 약 100명이 찾았지만 이날 소식을 들은 이들이 더해져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불렀다.



양 사장은 “이런 날 기쁨을 나누지 않으면 언제 나누겠어요. 돈보다 마음이 먼저죠”라고 미소 지었다.

그는 “어젯밤 출근조사를 보면서 너무 기뻐 눈물까지 흘렸다. 광주가 전국 투표율 1위를 기록했는데 광주시민의 정신이라 생각한다”며 “새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주성학 기자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

미래를 함께 여는  
포용적 교육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한

2025 학교폭력 예방 토크 콘서트

일시

2025. 6. 19.(목) 14:00~16:00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

대상

교원 및 교육전문직, 학부모, 일반 시민 등

1부

강연 : 표창원 소장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및 권한 강화’

2부

토크 콘서트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SPO 제도 활성화 방안’

진행

김의성 변호사

참여자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김민주 광주경찰청 청소년보호계 계장

김용원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수현 학부모 패트돌맘 광주지부

장금만 월봉중학교 교장

표창원 소장

참석신청하기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광주매일신문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9

CMYK